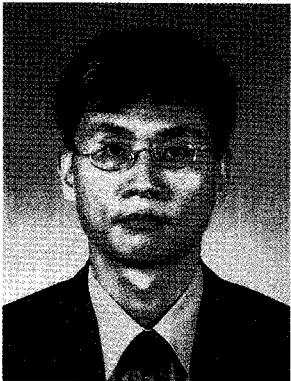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두 한걸음씩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실로’

지난 9월 4일 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담에서 내건 슬로건이다.

이번 회의는 10년전 리우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아젠다21’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행동계획’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 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속 가능 생산 소비 패턴’에 있어서는 오염자 부담원칙을 비롯한 청정생산 확대, 기업의 환경사회측면 책임강화, 환경비용의 내부화, 환경친화 상품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공구매정책권장 등의 많은 논의와 합의사항이 있었지만 지속 가능 생산 소비에 대한 각국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큰 틀을 만들지는 못했다.

이는 향후 환경문제해결에 있어서 각국의 이해에 기초한 협상과 협약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경제 각 주체들의 보다 더 자발적이고 책임있는 노력들이 바탕에 있을 필요를 다시한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점은 재활용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례로 최근 폐휴대폰의 재활용을 위한 생산자책임제도를 시행하기로 관련 당사자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약 1억개에 가까운 휴대폰 생산량을 감안해 볼 때 이의 소각 매립이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를 재활용하기위해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할 책임이 있는데 특히 경제에 보다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폐기물문제에 참여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물건을 디자인하고 생산,유통한 기업들이 책임을 질 때 비로소 폐기물 문제는 확실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된다.

지구적인 협상으로는 아직도 갈길이 멀지만 이번 폐휴대폰 회수 및 재활용과 같이 기업 정부 시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미래’가 ‘현실’로 한걸음씩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